

전국 7개 단체장 공동현안 돌파구 마련 '제33차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 개최



광주 동구는 5월 31일 서울 중구 청에서 열린 '제33차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에서 전국 7개 자치구 단체장들이 공동현안 돌파구 마련을 위해 힘을 모았다고 밝혔다.

3년 만에 개최된 협의회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7개 중심 자치구가 겪는 구도심 공동화, 상권 침체, 인구 유출 등 공동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임택 구청장은 지역별 우수 정책사례에서 '인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인문자원 기록화'를 대표 우수사례로 발표하면서 구도심이 보유한 자원을 재발견하고 나눔·연대의 공동체 회복을 실현하는 '인문도시 조성사업'을 적극 알렸다. 더불어 문화관광 활성화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김도기 기자

전남교육청 '2024 대입정보 박람회'

7일 목포·8일 나주·9일 순천...전국 74개 대학 참여



전남교육청이 수험생에게 필요한 대입 실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목포와 나주, 순천지역에서 잇따라 '2024학년도 대입 정보 박

람회'를 개최한다.

도교육청은 7일 목포실내체육관, 8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9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2024학년도 대입정보 박람회'가 잇따라 열린다고 4일 밝혔다.

박람회는 전국 74개 대학이 참여하며 학생·학부모들이 대학별 입학사정관들과 대면 상담을 할 수 있다.

또 사전 신청을 통해 1대 1 수시 상담도 받을 수 있으며 6월 모의평가 성적을 토대로 입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김도기 기자

광산구 '나 잇수다'...1인 청년 지원

오늘부터 선착순...공간정리·건강·심리검사 등 160명

광산구가 1인 청년가구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나 잇수다' 사업의 참여 청년을 모집한다.

대상은 광산구 내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만19세~39세), 우리 집 넓히기 공간정리(40명), 건강 체크(60명), 마음 두드림 심리검사(60명) 등 세 가지 프로그램에서 총 160명을 모집한다.

우리 집 넓히기 공간정리는 광산구 내 원룸에 전·월세 임차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이 주거 공간을 더 넓게 쓸 수 있도록 정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해 체성분 검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안내 및 연계 지원한다. 마음 두드림 심리검사는 총 8개 심리검사 중 청년이 원하는 2종을 선택한다. 심리검사 후 1:1 해석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모집은 6월5일부터 선착순으로 한다. 프로그램별 인원이 충족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누리집 '새소식'이나 광산구 시민경제과 청년활력팀(062-960-3873)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기 기자

광주시, 청소년동아리박람회 개최

30개 동아리 참여 재능·끼 발산...모범청소년상 시상



광주시는 청소년의 동아리 활동을 응원하기 위해 지난 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플라자브릿지와 하늘마당 일원에서 2023 광주시 청소년동아리박람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엔조이 유어 유스'(Enjoy Your Youth)라는 주제로 다양한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행사는 참여기구 대표 청소년의 청소년 선언문 발표에 이어 광주시 모범청소년상 시상, 2023 광주시

청소년참여위원 위촉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영화 제작 과정 소개과 영화 속 주인공을 체험해보는 서구 청소년문화의집 동아리 '영·제·체' ▲미디어 리터러시 다양한 매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알아보는 청소년수련원 동아리 '퍼스트'(FIRST FILM) ▲기후 환경에 동참하기 위한 미니화분·에코백 장바구니 만들기 체험하는 옹봉청소년문화의집 동아리 '우가릿' 등 30개 동아리가 그동안의 성과를 선보였다.

김도기 기자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5개 연합체 선정

차세대통신분야에 국민대·광주 등...2026년까지 연 102억원씩 지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5개 대학·광역시도 신규 연합체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주관 대학과 광역시도는 분야별로 ▲항공드론 경상국립대·경남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성균관대·전북 ▲이차전지 충북대·충북 ▲차세대통신 국민대·광주 ▲에코업(業) 고려대(세종)·세종이 뽑혔다.

이 사업은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분야 인재를 기르기 위해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가 광역시도와 연합체(컨소시엄)를 맺고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한다.

각 연합체에는 주관 대학을 비롯해 5개 대학(1곳은 전문대)이 참여했다. 수도권 또는 비수도권 대학을 각자 적어도 2개 이상 포함시켜 편중이 없게 했다.

선정된 연합체는 올해부터 2026년

까지 4년간 매년 102억원씩 재정을 지원 받는다. 사업비는 공동 교육과정 개발·운영, 교원·학사제도 유연화, 기업 참여 프로젝트(we-meet) 등을 추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학생들은 전공에 관계없이 소단위 전공을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5개 분야별 연간 약 1000명 규모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올려 지난 정부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을 이어받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8개 분야별 '대학 주도형' 연합체들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총 13개 연합체에는 모두 1443억원이 투입된다.

장상운 교육부 차관은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 안팎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선정을 계기로 인재 양성·활용에 있어 지역의 협업과 참여가 보다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교복담합 피해' 광주 50여개 중·고교...계약해지 가능

광주시교육청 법률자문...계약 당사자 일선학교와 공동 대응

광주시교육청이 "담합행위로 검찰에 적발된 교복판매점·대리점에 대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법적인 해석을 토대로 계약 당사자인 일선 학교와 공동대응에 나선다.

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중·고교에 납품되는 교복가격 담합행위로 적발돼 법원에 기소된 교복판매점·대리점과의 계약해지 여부에 대해 변호사 등을 통해 법적인 자문을 받은 결과 '판결 전 해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해제·해지 결정은 학교와 낙찰자가 하도록 규정돼 있어 교복판매점·대리점과 납품 계약을 맺은 각 중·고교가 결정을 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2일 적발된 업체와 교복납품계약을 맺은 학교의 업무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같은 내용을 설명한 뒤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적발된 교복판매점·대리점과 납품계약을 맺은 중·고교는 공립 20개교로 파악됐다.

사립학교까지 포함하면 50개교 이상이 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최대 10만원 이상 비싼 교복값을 판매점·대리점에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교복선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추가 안내했다.

이에 따라 각 학교들은 교복 납품 계약 해지 여부를 검토해 학부모에게 알릴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지역 대부분의 교복판매점·대리점이 담합행위로 적발돼 학교와 학부모들이 비싼 교복값을 지불하고 구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해지를 할 경우 2학기부터 교복을 입는 학교의 신입생들은 사복을 입고 등교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며 "교복업체들의 담합행위로 인해 학교를 비롯해 학생·학부모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부는 지난 4월 24일 교복판매·대리점 45곳, 점주 31명을 입찰방해와 독점 규제·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선주 기자

북구, 초·중·고 학교장 간담회 상생발전 도모...2회 추진

북구는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교장단 50여 명을 초청해 '관학 상생발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자체와 교육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추진한다.

5일에는 초등학교 교장단과, 8일에는 중·고·특수학교 교장단과 만남을 갖고 관학 협력사업, 학교 건의사항, 교육 현장 애로사항 등 지역사회의 광주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안건을 논의한다.

특히 북구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 나눔주차장 사업, 교복나눔 사업, 테마별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학습 등 다양한 협력사업에 대해 학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소통과 교류의 시간도 갖는다.

간담회에 앞서 학교로부터 접수한 사전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관련 부서 검토 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구청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관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휴식·문화·교육 복합시설' 서구청소년꿈누리센터 개관

쌍촌청소년문화의집 등 입주...댄스·밴드실 등 갖춰



청소년들이 상상의 날개를 마음껏 펼치는 공간이자 청소년을 위한 휴식·문화·교육 복합시설인 광주 서구청소년꿈누리센터(서구 상무오월로 23)가 지난 3일 개관했다.

서구청소년꿈누리센터는 지하1층~지상4층(연면적 2002.65㎡) 규모로 댄스실, 밴드실, 북카페, 자치활동실, 요리실, 집단상담실·심리검사실 등이

갖춰져 있으며, 명칭은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또한 센터에는 쌍촌청소년문화의집, 서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입주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특히 쌍촌청소년문화의집은 서구 관내에서 금호동과 치평동에 이어

세 번째 문을 연 구립 청소년 수련시설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에 어울림과 자치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드론, 메타버스, 빅데이터, 코딩, 가상현실 등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 기자단 등 각종 청소년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에게 상담 및 체험활동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돕는다.

쌍촌청소년문화의집은 평일 9시부터 21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조선주 기자

전남도립대 '글로벌대학30' 선정 온힘...국립대 협력 강화

전남도립대학교가 비수도권 대학 중 경쟁력 있는 대학에 5년간 최대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벌대학 30' 선정 참여를 위해 도내 국립대와 협력 대응에 나섰다.

전남도립대는 교육부의 '글로벌대학 30' 선정에 대응해 지난달 30일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와 교류·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사업을 비롯해 글로벌대학 협력사업 운영,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평생 교육과정, 외국인 유학생 공동유치 등에 협력키로 했다.

전남도립대와 목포대는 '대학지원체계·글로벌대학 협력사업 운영', '해외 기능전문인력 유치·양성', '교육 연계사업 협력' 등에 힘을 모은다.

순천대와는 '지역 산업 신기술개발 연구와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지·산·학 연계 협력', '평생 교육과정 협력·외국인 유학생 공동유치', '지역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대학 거버넌스 개방' 등을 추진한다.

장현범 전남도립대 총장 직무대리는 "협약을 통해 변화하는 지역대학 교류·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두 국립대와 적극 협력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우수인재를 육성해 지역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광주경찰청, 직접 수사부서 한 곳 모은 '수사동' 짓는다

올해 첫 기본설계비 편성·집행...2028년 8월 준공 목표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변화 흐름에 발 맞춰 광주경찰청이 직접 수사부서를 한 곳에 모은 '수사동'을 신축한다.

인권친화적인 조사 환경을 구축하고 부서 간 유기적 협업체로 능률성을 높여겠다는 취지다.

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시청은 오는 2028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수사동' 신축 계획을 추진 중이다.

신축 추진 배경으로는 수사관 조정 이후 늘어난 수요에 맞춰 인권친화적인 수사실 환경 구축이 꼽힌다.

개별 분리·구획화한 수사실, 진술녹화실 등을 갖춰 수사관·사건

관계인의 조사 편의를 배려하고 수사 기밀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국가수사본부가 권고하고 있는 수사실 개수는 수사관은 수사관 5명당 1실, 형사과는 형사 7명당 1실이다.

또 관련 부서를 집적화해 능률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광주시청은 기대하고 있다. 조직 확대와 장비 증가로 비좁아진 청사 사무실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새로 지을 수사동은 현 청사 내 대니즈장 3만7730㎡ 부지에 들어선다. 건물 규모는 지상 6층·연면적

6896㎡이다.

공사비 188억 3500만 원을 비롯해 설계비·감리비·부대비용을 통틀어 총 사업비 199억 5700만 원 규모로 추산된다.

지난해 말 증축사업 기금운용계획 정무안이 확정, 국회 승인을 거쳐 올해 처음으로 기본설계비 명목 예산 1억 2600만 원이 편성·집행된다.

현재까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를 끝냈고, 다음 달부터는 조달청 주관으로 설계 공모를 의뢰한다. 올해 10월에는 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오는 2025년 7월까지 기본·실시 설계를 마칠 계획이다.

광주시청은 2026년 3월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도기 기자